

예배 WORSHIP

October 20,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여호수아23:1-8, 24:44-18 여호수아의 고별사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봉 헌 / 오정은 집사, 홍현근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헌신과 나눔	
삶과 세상으로	* 비주소서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구은강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레위기 23:9-25
이스라엘의 결기

오늘의 찬양

날 세우시네 / 원곡: You raise me up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통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이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아일랜드의 민요를 기초로 만들어진 이 곡은 한국에서 찬양의 가사로 새롭게 변화해 한국컨티넨탈 싱어즈나 소향 등이 부르며 교회에 널리 알려졌다. 지친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부르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지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느낌에 빠진 우리가 새로와 질 수 있다.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6)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13)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5~7)

찬 주간의 기도

“내가 갈 길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내가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을 때 조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였고, 내가 버려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며 소망을 간절히 붙들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종렬 목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로마서 14장 17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6)



나 문제와 필요 때문에 예수님은 뒷전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교자 하시니라” (요 9:2,3)

1.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크기로 문제를 정의하고 싶어 한다. 즉, 누구 때문인가를 따져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정의하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다른 답변을 하신다. 누구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 이유라고 하신다. 우리의 익숙한 방법을 따르자면 이런 현실인식은 조금 상황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은 전적으로 우리의 현실인식 안에 예수님의 인식이 들어있지 않아서다. 우리 방식으로 문제를 정의하지 말고, 예수님의 정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자들의 상황인식은 분명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근거 없는 원인을 추측해 누군가를 정죄할 가망이 높다. 내 삶에 일어난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 그것은 효과적인 문제해결과 직결된다. 우리는 다가오는 문제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결론짓는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해로운가'에 따라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2. 문제정의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를 정의하는 기준은 '나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 한마디로 나의 이익을 위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알고 분석하는 원인과 결과는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나의 이익을 위한 본성에 충실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과 멀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사르가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려는 이유로 일어난 일이었다. 문제를 정의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시교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문제가 정의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과 통치하심의 내용이 문제를 정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문제 정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순종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정의와 해결책에 대해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많은 경우 문제는 그대로 있고 다름과 정죄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심은 더디게 올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을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

3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는 교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종교를 찾고, 교회도 사람들의 생각에서 예외는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기도 한다. 사람들 안에는 본성적으로 자신의 필요가 아니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교회도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필요가 있다. 사역자들은 의미 있게 사역을 하고 싶고, 사역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럴 때 행복하다. 성도들은 삶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이 필요하다. 그 필요가 채워질 때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회생활에 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고, 필요를 해결하는 쪽으로 움직이던 관계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사역이 주어지지 않거나 잘 안 되거나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문제해결이 잘 안될 때 무서움을 느낀다. 순식간에 절대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어려움은 늘 쉽지 않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는가? 기준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정의를 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이 준비되고,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관점을 교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길 기도한다. - 김길 목사, 『제자도』중 -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끝까지 충성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섬김의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주일성경공부가 계속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들: 장영현 전도사 / *성경인물: 고순제 전도사
- 10월의 Oikos 셀모임은 오늘 저녁 연합으로 가집니다. 장소: 최내권 집사 가정
-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김과 나눔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교육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 정훈렬 목사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선교목사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장이식 수술과 회복, 건강과 사역, 자녀들의 학업과 장래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 교우동정 - 김신실 집사 / 한국 가족방문 정훈렬목사 가정 / 귀국

예배와 양육 / 교제와 나눔 / 치유와 회복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훈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치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주일예배기도	10/13	10/20	10/27	11/3
		고순제전도사	구 민집사	장영현전도사	김훈태집사
점	금요일예배기도	10/18	10/25	11/1	11/8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최내권집사	오정은집사
심	주일헌금위원	10/13	10/20	10/27	11/3
		홍현근집사/오정은집사		박진성집사/최선운집사	
김	주일안내위원	10월			11월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 여호수아 21:43-45, 22:28-34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시지나,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과 축복이 그들의 몫으로 받지만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서로를 축복하며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가던 르우벤, 갓, 질반의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큰 제단, 증거의 단을 쌓았다. 요단강이 동과 서로 둘로 나누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명백한 증거이다. 서로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다시 확인하며 다짐했다. 우리도 각자에게 적합한 방법, 말씀 묵상, 기도와 찬양, 예배로 삶의 매순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약속을 들으며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맺은 언약들을 성실히 이행하며 받은 은혜를 보답하자.

여호수아의 고별사 / 여호수아 23:1-8, 24:44-18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은? 나의 모습은?

그의 고백과 이스라엘은 결단은?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말씀과 약속, 율법과 순종, 선택과 결단

여호수아에게 배우는 교훈과 도전은?

여호수아의 고별사 / 여호수아 23:1-8, 24:44-18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깨닫게 한다. 모든 사명을 완수한 후 덤넛 세라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던 여호수아는 두 번에 걸쳐 그의 고별사를 전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워주셨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오래 전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즉, 그는 이 말씀을 들었던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마음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셨는지 강조합니다. 정복 전쟁과 기업 분배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수백 년 동안 지키셨고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역사 모두가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우상들이 있었으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고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 양자택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마지막 모습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전부가 이 마지막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원하는 사람은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이렇게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지금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와 같은 멋진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려면, 다음이 아닌 지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꿈꾸며,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합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 영혼이 잠 못 들 때 내가 밤사에 잡히고 감금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October 20,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결실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노아 질수국
표알기 힘든
나은 자의 하나님